

기도

1.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전 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자신이 영적인 중간 상태에 놓여 있던 적이 있습니까?
2. 성전 생활을 통해 회복된 은혜를 나눠주세요.

신앙

바이블로 요한계시록2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일곱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내졌다. 이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 박해, 우상숭배와 음행을 통한 주변의 이교적 신앙과의 타협, 영적인 자기만족 등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강건하게 하고, 폭력, 거짓 선지자, 음행 등 어떤 형태의 마귀의 간계와도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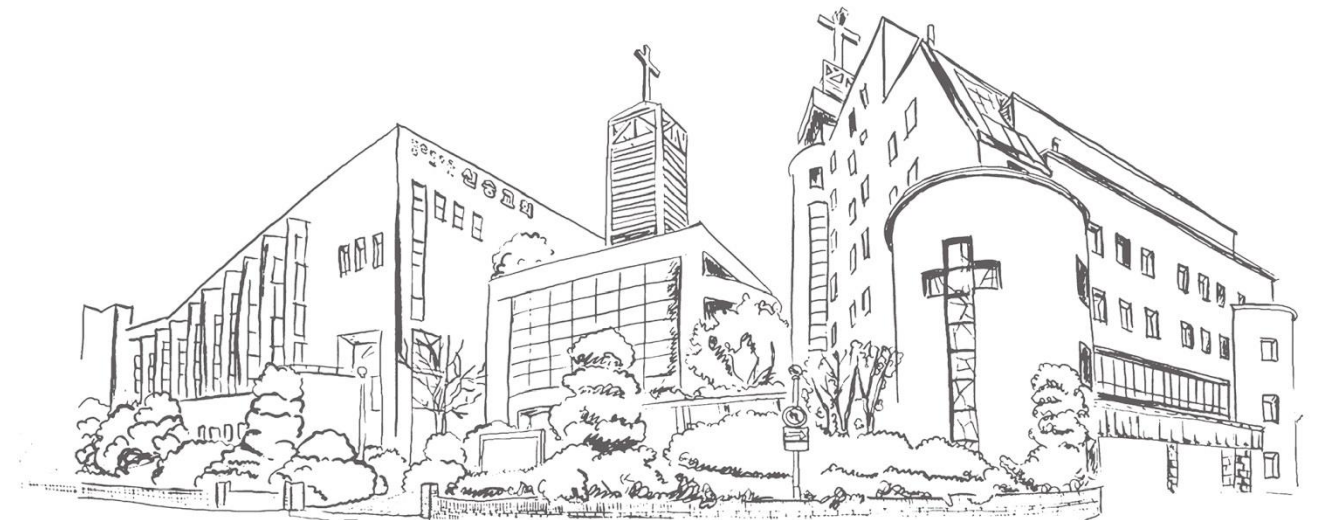


구역 공과

2022년 5월 22일

생명수로 되살아남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생명수로 되살아남

에스겔 47장 8~12절 (10장, 436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을 사모하시고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다의 물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8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그 물의 깊이를 천사가 측량하는데 그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사람의 키를 넘어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1-5절). 그리고 본문에서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8절).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기 위해서는 성전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사명하고 봉사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측량한 것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순종한 만큼 생명의 역사가 깊어지고 큰 강을 이루어 바다가 회복됩니다. 즉 영적인 성전생활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생명수가 흘러 생명이 없는 사해 바다를 소생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넘쳐흐를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루어 바다를 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성전에 가까이 있고, 또 영으로 말씀 중심이 되어서 영적 성전 생활을 하면 우리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9-10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가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하지만 원래 이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없는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메마른 가정, 강박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긴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생활을 통해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가정이 빼앗긴 은혜를 회복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회복될 때, 즉 바다에 물고기와 강가의 생물들이 돌아올 때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올 것을 알려주십니다(10절).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회복하면 떠난 자들이 돌아옵니다. 교회를 나왔다가 몸과 마음이 떠난 이들이 생명수가 넘쳐흐러 은혜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11-12절).

진펄과 개펄은 물을 머금은 땅으로서, 땅인지 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중간 상태의 땅을 의미합니다. 사해에도 이런 땅들이 많았는데, 이 땅은 비가 오면 짠 바닷물이 공급되고, 해가 뜨면 바닷물이 말라서 점점 소금기가 강해집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염분이 줄어들고 생명체가 생겨 정확되지만 진펄과 개펄은 물이 공급되지 않아 결국 사망의 장소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받았던 은혜까지 빼앗겨버리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심령들이 메말라지고 짜게 되어 인색해지고, 남을 찌르며, 믿음으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중간 상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여전히 갈등하는 성도, 말씀을 여전히 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진펄과 개펄과 같은 영적인 중간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인 사람은 결국에는 소금기만 남아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간 상태인 진펄과 개펄을 벗어나 생명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생명수를 사모하여 회복과 생명을 얻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잘 자라고, 잎사귀가 열리고, 과일은 먹을 만해지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12절).

특히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는 우리가 고난과 환란, 시험 가운데에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는 성전을 가까이 두어 봉사와 사명을 즐거이 하고, 영으로는 말씀을 순종하여 성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중간 상태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생명수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길로 돌아와 그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